

정금여 금강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아마 모든 직장인이 매일 반복하는 고민일 것이다. 딱히 떠오르는 메뉴가 없는 때에는 누가 좀 정해 줘야 싶은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혹은 함께 먹는 사람의 식성과 취향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고르는 일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이자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해 딸을 임신한 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 ‘뭘 먹을까’가 아니라 ‘뭘 먹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한 잔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 즐겨 먹던 매운 떡볶이도, 퇴근 후 남편과 TV를 보며 훌쩍훌쩍 마시던 맥주 한 잔도 모두 금기 음식 리스트에 올랐다. 무사히 출산을 하고 나면 그동안 참았던 음식들을 다 먹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로 열 달을 버텼는데... 이럴 수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더욱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소식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러나 산모가 먹고 또 먹어도 좋다는 음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미역국이다. 2주간 지냈던 산후 조리원의 식단에는 한 끼도 빼놓지 않고 미역국이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약 한 달간 주 메뉴는 미역국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법도 한데, 매일 먹는 미역국이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만한 음식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선 미역과 함께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국물 맛이 다르게 느껴졌던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다.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홍합, 들깨, 전복, 조랭이떡 등등 수많은 재료로 변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에 어떻게 간을 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역국에 담겨 있는 엄마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출산하기 몇 달 전부터 친정어머니는 산모에겐 미역이 최고라며 질 좋은 자연산 미역을 구해다 주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밥 챙겨 먹기 힘들 거라며 사흘에 한 번씩 직접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다. 양가 어머니의 정성과 더불어 얼른 몸을 회복해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새내기 엄마의 의지가 더해지니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미역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예로부터 산모의 필수적인 일상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도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 처음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얼마 전 태어난 지 100일을 맞이한 아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매년 생일상에 놓여 있던 미역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다.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매해 돌아오는 아이의 생일 때마다 무사히 태어나 준 것에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아 미역국을 끓여 주어야겠다.



김정민
수시교육팀